



▲ 한라산 등반 전 성판악 입구에서 정상 등정을 위한 힘찬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사)다문화가정협회(대표이사 김상실)에서는 지난 8월 8일부터 10일까지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의 '발칙한 도전기' 중 "꿈을 위한 극기훈련 나의 한계에 도전! 한라산아 덤벼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본 프로그램은 2022년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으로 사)다문화가정협회가 주관하고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진행됐다.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발칙한 도전기' 진로상담, 인권·스피치·직업진로교육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발칙한 도전기' 프로그램의 첫 시작인 꿈을 위한 디딤돌 놓기는 지난 7월 9일부터 매주 1회기씩 진로상담 2회, 인권교육, 스피치교육, 직업진로교육 '선배에게 듣는다' 등 총 5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모두 수료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꿈을 위한 극기훈련인 한라산 등반에 도전하게 됐다.

진로상담교육은 총 2회로 첫시작과 마무리 교육으로 학생들의 효율적인 진로를 위한 마음가짐을 책을 활용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기부여를 받음으로 효과적인 학교생활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통한 진로 동기를 부여해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 직업진로교육 '선배에게 듣는다'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 제주도로 출발하기전 사)다문화가정협회 교육실에서 사전미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또한, 학생인권교육은 개인의 존재와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사는 방식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학생들에게 정의로움을 실천하는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직업진로교육 '선배에게 듣는다'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진로 가치관을 갖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멘토의 성장 스토리를 통해 상담관련 진로와 교육강사 활동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스피치교육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인권과 진로 그리고 스피치의 올바른 인식을 통해 자아정체성의 확립 및 진로 결정성을 높여 사회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이 됐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수료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8명은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는 한라산 등반에 도전 지난 8월 8일 청주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 위밍업으로 저지오름을 오르면서 한라산 등반에 대한 마음가짐을 다 잡고 일찍 잠자리에 들어갔다.

꿈을 위한 극기훈련, 한라산 등반

다음날 새벽 5시 성판악입구에서 미리 신청해 놓은 한라산 등반을 허가하는 QR코드를 찍고 꿈을 위한 극기훈련인 한라산 등반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기 전 결의를 다지는 파이팅을 외치면서 꿈을 위한 극기훈련의 긴 여정이 시작됐다.